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인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동참해주세요

2025년 제 34호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01

윤재명 쇼트트랙 대표팀 감독, 다시 사령탑 복귀...빙상연맹 이사회 의결

뉴시스 문채현 기자

02

복싱대회 중학생 선수 '의식불명'..."진행 미흡·골든타임 놓쳐" 주장

JTBC 유혜은 기자

03

축구 올인하던 선수들, 은퇴 뒤 맞닥뜨린 막막한 황무지

한겨레21 류석우, 박수진 기자

04

어린 선수들은 언제부터 한 종목에 전념해야 할까?

티스토리 메트로폴리탄 니커보커클럽

05

'운동하는 모든 학생, 자기주도적 미래형 체육 인재 육성' 축제 한마당

경남일보

윤재명 쇼트트랙 대표팀 감독, 다시 사령탑 복귀…빙상연맹 이사회 의결

뉴시스 문채현 기자

2025.09.10 21:59:29

사진=2024-25 KB금융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투어 4차 대회 국가대표 미디어데이 윤재명 감독(뉴시스 전신기자)

각종 잡음 속에 지휘봉을 내려놔던 윤재명 감독이 다시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사령탑으로 돌아온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10일 이사회를 열고 윤재명 감독의 대표팀 복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연맹 관계자는 "이사회 의결 이후로는 행정적인 절차만 남는다. 윤 감독님께 결과를 통보하고 복귀를 수락하시면, 대한체육회 승인 절차를 밟은 뒤 다시 대표팀으로 돌아가시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재명 감독은 지난해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4~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투어 3차 대회 기간 공금 처리 문제로 연맹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대표팀 훈련에서 제외됐다.

그는 지난 5월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시작한 쇼트트랙 대표팀 소집 훈련에도 합류하지 못했다.

이에 윤 감독은 연맹의 징계 결정에 불복,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 청구와 가처분 신청에 나서 지도자 자격을 회복했다.

빙상연맹은 지난달 말 김선태 연맹 쇼트트랙 경기이사 겸 성남시청 감독을 대표팀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하기도 했으나, 김 감독의 과거 징계 건과 관련해 상위 기관의 유권 해석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를 퇴촌 조치했다.

당장 반년 뒤 열리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내홍을 겪은 한국 쇼트트랙은 윤 감독의 복귀로 일단 상황을 일단락했다.

다만 함께 징계를 받은 A 코치에 대한 처분은 남아있다.

연맹 관계자는 "A 코치와 관련해서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다. 가처분 인용은 났지만 아직 불안까지 취소된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복싱대회 중학생 선수 '의식불명'... "진행 미흡·골든타임 놓쳐" 주장

JTBC 유혜은 기자

2025.09.08 23:06

사진=(JTBC'사건반장' 방송 캡처본)

전국 복싱대회에 참가한 중등부 선수가 경기 도중 쓰러져 의식불명이라는 제보가 8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제보자인 선수 부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3일부터 제주 서귀포에서 열린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회 첫날인 3일 오후 4시쯤 전남의 한 복싱클럽 소속의 중학생이 57kg급 경기 2라운드가 시작되자마자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선수 부모 측은 경기 진행이 미흡했고, 응급조치도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수 어머니에 따르면 경기 내내 아들은 일방적으로 공격당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1라운드가 끝나고 2라운드가 시작됐을 때 이미 아들은 가드를 못 올리고 동공이 풀린 듯한 상태였다는데요.

이를 상대방 선수도 알아챈 듯 주춤거렸지만, 경기는 계속 진행됐고 결국 아들은 2라운드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쓰러졌다고 어머니는 설명했습니다.

이미 1라운드에서 다운을 당하는 등 2라운드를 뛸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코치나 심판이 알 수 밖에 없음에도 경기를 강행시켰다는 주장입니다.

선수 부모는 병원 이송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는데요.

119를 부르는 대신 경기장에 있던 사설 구급차로 선수를 병원으로 옮겼는데, 신호를 다 지키며 천천히 이송했고 병원도 제대로 찾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구급차를 타고 함께 병원에 간 복싱대회 관계자는 사설 구급차 기사가 사이렌 켜는 방법도 몰랐고, 병원에 다 와서도 입구를 못 찾아 뱅글뱅글 돌며 시간을 지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경기장에서 병원까지 약 30분이 소요됐는데, 의료진은 "너무 늦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의식이 없고, 뇌 쪽에 산소 공급이 잘 이뤄지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분노한 선수의 아버지는 8일 오전 경기가 진행 중인 복싱 링에 올라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대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유독 이번 대회 첫날 병원으로 이송된 선수가 많았다고 하네요.

첫날에만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둘째 날에도 1~2명 병원으로 실려 간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경기 도중 이런 일이 흔하지는 않은데, 그만큼 대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관계자는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회를 주최한 대한복싱협회 측은 "경기 중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송구스럽다"면서도 "통상적인 경기 수준이었고, 경기를 중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2라운드를 시작하기 전 코치가 선수에게 경기를 계속 할 수 있을지 물었을 때, 선수가 '뛰겠다'고 해서 경기가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며, 병원비 등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축구 올인하던 선수들, 은퇴 뒤 맞닥뜨린 막막한 황무지

한겨레21 류석우, 박수진 기자

2025-09-02 19:58

사진=(한겨레21 류석우 기자)

“은퇴하고 캐디 한다는 말, 많이 들었죠. 주변에 축구를 했던 사람들 90%가 캐디 일을 하니깐. 그런데 저는 나중에 축구를 그만둬도 캐디는 하지 않고 싶었어요. 제가 축구를 했는데 (다른 직업인) 캐디를 하는 게 싫었거든요. 그런데…, 하게 되더라고요.”

6년차 캐디 김수연(28)씨가 말했다. 수연씨는 한때 축구선수가 되길 간절히 원하던 유망주였다. 그러던 그가 어떻게 캐디로 일하게 됐을까.

팀 해체에 이은 부상, 한순간에 축구 인생이 닫히다

대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수연씨는 축구 유망주로서 탄탄대로를 걸었다. 중·고등학교 때 연령별 국가대표팀을 거쳤고, 2015년 여주대 축구부에 진학했다. 감독이나 팀의 스타일이 수연씨와 잘 맞았고, 1학년을 마칠 때쯤인 2015년 11월엔 실력 좋은 예비 신입생도 많이 들어왔다. 통상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하기 전년도 겨울부터 합류해 함께 훈련한다. 잘하는 후배들이 들어온 만큼 동계훈련 때 잘 갈고닦으면 2학년 땐 우승에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더블유케이(WK)리그 입단도 손에 잡힐 듯했다.

2015년 12월 어느 날, 기숙사에 갑자기 학부모들이 들이닥쳤다. 함께 훈련하던 예비 신입생 학부모들이었다. 감독이 그만뒀다는 소식을 듣고 학교에 찾아왔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집을 싸들고 기숙사에서 나갔다. 수연씨는 그때까지도 감독이 그만둔 것을 몰랐다. 학교와 예산 배정 문제로 갈등이 생겨 그만뒀다는 걸 나중에야 전해 들었다. 그렇게 예비 신입생이 대거 빠지자 학교엔 2학년만 남았다. 학교는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지 않았다. 수연씨를 비롯해 몇몇 학생은 학교를 옮겼지만, 많은 학생이 축구를 그만둬야 했다. 2016년 초 여주대 여자축구부는 해체됐다.

수연씨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었다. 그만둔 감독의 추천으로 여자축구부가 있는 위덕대에 재입학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덕대 축구부에서의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원치 않는 포지션 변경은 첫 번째 시련이었다. “감독님이 제가 키가 크다며 중앙수비로 세웠어요. 제 자리(공격)엔 이미 잘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수비가 정말 안 맞았거든요. 그러다보니 잘 뛰지도 못하게 되고, 점점 감을 잃었던 것 같아요.” 2025년 7월7일 전남 담양의 한 카페에서 만난 수연씨가 말했다.

중학교 때도 억지로 포지션을 변경한 적이 있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수연씨의 포지션은 공격수였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감독이 골키퍼로 포지션 변경을 요구했다. 당시 골키퍼 자리가 비었는데, 수연씨가 그저 키가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비슷한 시기 축구부가 해체된 다른 중학교 학생들이 대거 전학을 왔는데, 그 팀에는 잘하는 학생이 많았다. 감독은 수연씨에게 “네가 (전학 온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그냥 골키퍼 해라”라고 했다.

수연씨가 공격수 포지션을 되찾은 건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나서다. 감독을 찾아가 울면서 사정한 끝에 다시 포지션을 바꿀 수 있었다. 그렇게 겨우 되찾은 공격수 포지션을, 여주대 축구팀이 해체되면서 다시 잃었다. 대학을 옮긴 이후 악재는 포지션 변경뿐이 아니었다. WK리그 지원 기회도 빼앗겼다. 여자축구연맹 규정상 대학에 입학한 경우 2시즌만 마치면 드래프트가 가능하다. 수연씨는 재입학했어도 이미 여주대에서 1년을 마쳤기 때문에 한 학년만 더 다니면 드래프트 지원이 가능했다. 수연씨도 그걸 원했다. 그런데 감독은 1년을 더 해보고 드래프트 신청을 하자고 했다.

“저는 사실 상무(현 문경상무)팀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감독님이 상무 지원 일정을 말씀 안 해주시더라고요. 당시 상무에선 한 명만 뽑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른 선수를 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인을 통해 서류 접수 소식을 듣고 지원해보려 하니까 감독님이 다음에 넣게 해줄 테니 이번엔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해를 넘겼지만, 수연씨는 이듬해에도 끝내 드래프트 신청을 하지 못했다. 이번엔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다. “그땐 그냥 망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월 200만원 축구 코치 vs 월 500만원 캐디

수연씨가 축구를 그만두고 대학에 다니고 있을 때 위덕대 감독한테 전화가 왔다. “초등학교 코치 자리가 있는데 한번 가볼래?”

지도자를 꿈꾼 것도 아니지만 평생 축구만 해온 수연씨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할 수 있는 게 축구밖에 없었으니까요. 당장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축구 지도)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수연씨는 2018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코치로 일하게 됐다.

초등학교 지도자의 길은 쉽지 않았다. 아침 7시30분에 선수반 첫 훈련을 하고 학생들을 학교에 보낸 뒤 오후엔 취미반 학생들을 가르친다. 이후 학교를 마친 선수반 아이들과 오후 훈련을 하고 저녁을 먹는다. 때에 따라 저녁 8~9시까지 야간 훈련을 하면 일과가 끝난다.

그러나 합숙하는 학교의 여성 코치는 일이 끝나지 않는다. 기숙사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사감’ 역할도 해야 했다. 평일엔 저녁 시간이 아예 없다. 토요일 오전 훈련을 마친 뒤 나가 일요일 오후에 들어오는 것이 일주일 중 유일한 휴일이었다. 사실상 24시간 대기하는 구조다. 학부모들은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고, 아이들이 아프거나 기숙사에서 일이 생기면 모두 수연씨에게 의지했다.

이렇게 일하고 학교에서 받는 급여는 월 120만~130만원 정도였다. 학부모들이 따로 챙겨 주는 돈이나 방과후 취미로 축구를 하는 아이들 과외 교습비까지 다 더해도 월 200만원을 겨우 넘겼다. 1년 반을 버티던 수연씨는 2019년 7월께 학교를 그만뒀다. 그 직후, 고등학교 때 함께 축구를 했던 친구가 ‘같이 캐디 일 해보자’고 했다. 수연씨는 업무 교육을 받고 2020년부터 캐디로 일하고 있다. 지금은 주에 3~4일 일하고 월 500만원 정도를 번다. “초등학교 코치를 그만두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캐디는 테스트 같은 걸 보긴 하지만 엄청 공부를 많이 필요로 하진 않았거든요.”

한겨레21이 진행한 ‘여자축구 생애사’ 설문조사를 보면, 여자축구를 하다 은퇴한 선수 35명 가운데 3명이 ‘캐디로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겨레21이 직접 만난 전현직 여자축구 선수들과 지도자들은 이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수치보다 훨씬 더 큰 비율의 은퇴선수가 캐디로 일하고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기은경 전 한양여대 감독은 “주변에 은퇴한 선수 가운데 절반 정도는 캐디 일을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여자선수들에겐 지도자의 문조차 좁다

은퇴한 여자축구 선수들이 캐디 등 특정 직업으로 몰리는 배경과 구조는 뭘까. 시작은 학창 시절 부족한 진로교육에 있다. 2024년 한국레저사이언스학회지에 실린 ‘여자축구 선수의 은퇴 진로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성민지)를 보면 “선수들은 운동 외 다른 것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진로 선택에 있어 어려움이 나타난다”며 “이미 대한체육회 진로지원센터에서 진로 상담이나 진로교육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런 프로그램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고, 현행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진로전환 성공률이 낮다는 연구도 있다”고 지적했다.

스포츠 선수들에게 진로 탐색 기회가 부족한 건 비단 여자축구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여자축구 선수든, 남자축구 선수든, 은퇴 이후 가장 쉽게 접하는 것이 지도자의 길이다. 문제는 여자축구 선수들은 그마저도 제한된다는 점이다. 국내 초등학교부터 WK리그까지 여자축구팀 수는 64개로, 남자팀(1069개)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데 여자축구팀 안에서도 남성이 지도자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한겨레21이 제24회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에 참여한 62개팀을 분석한 결과, 감독이 공석인 한 곳을 뺀 61팀 가운데 33팀의 감독이 남성이었다. 반면 남자 초등학교~대학교 축구부와 프로팀에 여성 감독은 단 한 명도 없다. 김태희 전 감독이 2019년 수원FC U12팀에 감독으로 부임했던 사례가 유일하다. 기은경 전 감독은 “남자팀에 계셨던 지도자들이 여자 쪽으로 많이 넘어온다”며 “여자팀에는 여자 지도자가 많이 있어야 하는데 남자 지도자들이 다 꺾치고 있으니 들어가지를 못한다”고 말했다.

은퇴한 여자축구 선수가 지도자의 길로 들어서도 환경은 녹록지 않다. 이들은 ‘코치’라는 직함으로 불리지만, 실상 하는 일은 기숙사에서 선수들과 함께 상주하면서 이들을 관리하는 ‘보모’ 역할에 가깝다고 한겨레21이 만난 전현직 지도자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365일 애들이랑 같이 묶여 있어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여자축구 선수들이 캐디로 많이 빠지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이 힘들 거라면 제일 (준비 기간 없이) 빨리 할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캐디를 하는 거죠. 오죽하면 은퇴한 제자들이 저한테도 캐디를 해보라고 제안하겠어요.” 기은경 전 감독이 말했다.

그래서 많은 선수가 은퇴 이후 지도자의 길로 뛰어들었다가 다른 길을 찾는다. 대학교 때 축구를 그만둔 뒤 잠시 코치로 일했던 문채림(25)씨는 현재 미용사로 일하고 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고 싶었던 채림씨는 학창 시절 친구들 머리를 다듬어주던 기억을 살려 미용 일을 시작했지만, 주변에 캐디로 넘어간 동료가 많다고 털어놨다. “원래는 축구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은퇴 후) 지도자 쪽으로 가지 않는 이상 할 게 없었어요.”

여자축구 지도자보다 캐디 일을 하면 훨씬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다. 세종스포츠토토와 창녕WFC 등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가 2021년 은퇴한 장민영(32)씨도 “저도 캐디 일을 준비했다”며 “운동하면 아무래도 지출이 많은데, 캐디는 급여가 많이 보장되는 게 있다보니 그쪽으로 많이 빠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연씨는 “주변에 캐디 일을 하는 친구들이나 선배들을 보면 그만두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다”며 스스로도 자기 일에 만족한다고 했다.

하지만 수연씨에게 여자축구 코치 일과 캐디 일의 연봉이 비슷하다면 무엇을 하고 싶느냐고 물었더니 이런 답변이 돌아왔다. “무조건 코치로 일하죠.”

“축구밖에 못하는데 다른 걸 해야 하는 게 괴로웠다”

수연씨는 대학교 팀이 해체된 것을 계기로 여러 사건이 겹치면서 축구를 그만둔 케이스지만, 선수들이 가장 많이 축구를 그만두는 이유는 부상이다. 한겨레21이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축구를 그만두거나 은퇴한 이유를 묻는 말에 ‘부상’이라고 답한 이가 39%로 가장 많았다. 부상으로 축구를 그만두는 선수의 경우 대부분 다른 진로에 관해 생각해보거나 은퇴 이후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대학교 때 세 번째 십자인대 파열로 축구를 그만둬야 했던 정수아(24)씨도 그랬다.

수아씨는 축구를 잘하는 편이었다. 설봉중과 오산정보고를 나와 축구로 유명한 울산과학대에 진학했다. 어렵게 들어간 대학이었지만 학교생활이 순탄치 않았다. 당시 감독과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설이나 이런 인프라는 너무 잘돼 있어 축구 하기엔 좋았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감독님이) 말도 워낙 거칠고 그런 게 버티기 힘들었던 거 같아요.” 7월3일 경기 광주시의 한 카페에서 만난 수아씨가 말했다.

고민을 거듭하던 수아씨는 고등학교 때 같이 운동하던 친구가 여럿 재학 중인 경기 광주시의 동원대로 옮겼다. 학교를 옮기고 나선 한동안 모든 것이 좋았다.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다. 2024년 6월, 고등학교 때 두 차례 다쳤던 십자인대가 또다시 끊어진 것이다. WK리그가 간절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더 해보려 했지만 부모부터 의사까지 모두 말렸다. 같은 부위를 세 번째 다쳐서 수술도 한 번에 못한다고 했다. 부상 직후 1차 수술로 골반뼈를 이식한 뒤 6개월 뒤에 2차 수술을 해야 했다. “1차 수술 직후까지만 해도 계속 버텨보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평생 제대로 걸을 수 있으려면 그만둬야 했어요.”

막상 축구를 그만두기로 하고 집에만 있으려니 너무 힘들었다고 수아씨는 돌아봤다. 그래서 시작한 게 아르바이트였다. 쿠팡 배달부터 식당, 축구장 매표소 일 등 닥치는 대로 일했다. “축구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 말고 밖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축구 말고도 세상은 넓고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그때 마음 정리를 했어요. 2차 수술 때는 그래서 오히려 마음도 편했어요.”

수아씨는 특히 서비스직이 잘 맞았다. 그러다가 생각이 든 게 미용이었다. 어려서부터 꾸미는 걸 좋아했던 그는 2차 수술 이후 미용학원에 등록했다. 현재 미용사 국가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수아씨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경험해보면서 다른 진로를 정했지만, 모두가 쉽게 바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한겨레21이 진행한 여자축구 선수의 생애사 설문조사에서 은퇴한 35명 중 ‘은퇴 이후 직업이 없거나 한 개의 직업만을 가졌다’고 답한 사람은 12명이었지만,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졌다’고 답한 사람은 23명이었다. 은퇴 이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을 묻는 말엔 “축구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다른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거나 “축구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원하는지 모른다는 것” 등의 답변이 많았다.

‘축구밖에 생각 못하는 경주마’로 키워진 선수들

팀의 해체든 부상이든 갑자기 사회로 내몰렸을 때의 막막함은 국가대표를 경험하고 WK리그에서 뛰었던 선수들에게도 똑같이 찾아왔다. 2010년 U17 여자월드컵 우승 멤버이자 드래프트 1순위로 지명돼 국민체육진흥공단(현 화천KSPO) 소속으로 WK리그에서 뛰었던 오다혜(32)씨는 2019년 스물여섯 살에 은퇴했다. 2025년 3월12일 서울 관악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WK리그에서 오랫동안 뛰었지만 은퇴 뒤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로 전문선수 생활 자체가 누르면 직업이 튀어나오는 ‘도깨비 방망이’인 것은 아니다. 한편으로는 축구 말고 다른 일을 해보고 싶었다. “축구를 비교적 빨리 그만둔 이유 중 하나는 청소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축구 말고는 해본 게 없다는 것도 컸어요. 축구만 하다가 더 늦은 나이에 은퇴하면, 이후 삶의 비전을 찾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았어요.”

다혜씨는 은퇴 이후 지인 회사에 입사해 3년간 사무직으로 일했다. 일하면서 필라테스 자격증을 따고 회사는 그만뒀다. ‘돈의 쓴맛’도 봤다. 전세 대출 이자는 계속 오르는데 필라테스 강사로 버는 돈은 한계가 있었다. 2023년 친오빠가 한 ‘홍게 장사’ 제안을 덩석 받은 것은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축구선수 출신 홍게장사’라고 뽐족한 수가 생겨 매출이 막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6개월 만에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축구 코치다.

다혜씨를 포함해 은퇴한 이들은 전문 축구 선수로 생활하면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축구 외에 다른 진로를 고민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했다.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내 스타일은 뭐지? 이런 걸 알고 찾아가며 크는 게 맞는데, 한국에서 축구를 비롯해 어떤 스포츠를 하면 딱 그 스포츠만 보고 살게 돼요. 제 경우에는 ‘축구밖에 생각을 못하는 경주마’로 키워졌던 거죠. 운동선수들은 이른 나이에 스포츠를 그만두게 되는데 ‘은퇴 준비’는 은퇴하고 나서부터 시작해요.” 다혜씨가 말했다.

수아씨도 “어렸을 때는 그냥 무조건 축구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고, 그만둘 생각조차 전혀 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무조건 축구로 성공하겠다는 생각밖에 안 해서 대학에 가기 전까지는 축구를 그만두면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혜씨는 일본 축구선수 이야기를 듣고 ‘그게 가능하구나’ 놀랐다고 했다. “일본은 (축구가) 서브잡이라더라고요. 완전 1군이 아닌 이상은 자기가 할 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준비되니 애네는 갑자기 그만뒀도 뭔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좀 놀랍죠. 아예 그런 세계를 모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가스라이팅 당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실제 한겨레21이 일본에서 만난 고등학교 축구부 학생 중에 프로선수를 준비하는 학생은 10%도 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경찰관이나 구조견 훈련사 등 이미 다양한 장래 희망이 있었고, 축구부에 참여하면서도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실제 한겨레21이 일본에서 만난 고등학교 축구부 학생 중에 프로선수를 준비하는 학생은 10%도 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경찰관이나 구조견 훈련사 등 이미 다양한 장래 희망이 있었고, 축구부에 참여하면서도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일본 고등학교 여자축구팀 589개, 그 비밀을 찾아서’ 기사 참조

https://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57883.html)

“모두가 프로 되는 것 아냐... 축구 그만두면 무조건 코치나 캐디”

수연씨는 빨리 캐디를 선택한 게 오히려 잘된 것 같다고 한다. “축구를 하는 학생들이 다 프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밥만 먹고 축구 한다 해도 모두가 되는 게 아니니까.

저는 WK리그 안 가고 그냥 그만두길 잘한 것 같아요. 지금 (WK리그에서) 뛰는 친구들도 보면 어쨌든 언젠가는 축구를 그만둬야 하잖아요. 그럼 분명 그만두고 할 게 없어요.

무조건 코치를 하거나 캐디를 하겠죠. 이미 제가 다 겪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착지는 같은데 누가 더 빨리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느냐의 차이 같아요.”

축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축구‘도’ 하면서 여러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는 없을까.

어린 선수들은 언제부터 한 종목에 전념해야 할까?

티스토리 메트로폴리탄 니커보커클럽

2025. 9. 12. 00:29

사진=(메트로폴리탄 니커보커클럽)

디 애슬레틱 러스틴 도드 기자의 칼럼 "젊은 선수들은 언제 한 종목에 전념해야 할까?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이다"입니다.

<https://www.nytimes.com/athletic/6616450/2025/09/11/youth-sports-specialization-parents-young-athletes/>

13세 때 야닉 시너는 리카르도 피아티라는 유명한 이탈리아 테니스 코치와 훈련하기 위해 집을 떠났다. 그가 오로지 테니스에만 집중한 것은 처음이었고, 큰 꿈을 품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목표를 세웠다.

"언젠가 세계 100위 안에 들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할 것"이라고 시너는 회상했다.

그는 확률을 알고 있었고, 이 스포츠가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지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부모님께 23세나 24세가 되었을 때 세계 200위 안에 들지 못하면 테니스를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너의 위치를 보면 - 세계 2위, 그랜드슬램 4회 우승, 여전히 24세 - 그가 자신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다. 하지만 시너는 일반적인 테니스 성장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독일어를 사용하는 남티롤 주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스키 선수로 활동했고 다른 스포츠도 함께 했다. 피아티 코치와 함께 일하기 전까지 테니스는 그의 삶의 일부일 뿐이었다.

테니스는 그 형태와 전통상 천재들의 스포츠다. 최고의 선수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 라켓을 잡고, 10세가 되기 전 아카데미 코치를 찾으며, 수년간 주니어 서킷에서 갈고 닦는다. 이런 성공 경로는 오랫동안 테니스를 청소년 스포츠 전문화 논쟁의 중심에 두었고, 선수들과 부모들이 직면하는 질문들을 제기했다: 젊은 선수를 육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언제가 전문화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인가?

연구자들은 조기 전문화 - 12세 이전에 연중 훈련하는 것으로 정의 - 가 부상 위험을 높이고 기술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해칠 수도 있다.

2019년 정형외과 스포츠의학저널에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미국 1부리그 선수의 약 45%가 16세까지 여러 스포츠를 했다고 추정된다. 하지만 이는 절반 이상이 16세 이전에 전문화했다는 뜻이며, 이 주제에 대한 수십 년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여전히 견고하다고 말한다.

"청소년 스포츠의 이런 문화적 현상을 바꾸기는 실제로 매우 어렵습니다"라고 에모리 대학교의 스포츠의학 전문의 니루 자얀티 박사는 말했다.

자얀티는 지난 20년간 젊은 선수들의 발달을 연구해왔다. 지금까지 어린 시절부터 한 종목만 하는 것이 여러 종목을 하는 것보다 좋다는 연구는 하나도 없다고 그는 말한다. 대신 연구자들은 샘플링의 이점 - 다양한 스포츠를 통해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 - 을 강조한다.

물론 운동에서 성공에 단일한 길은 없으며, 모든 스포츠마다 고유한 요구사항이 있다. 대부분의 골퍼들은 매우 어린 나이에 이 스포츠를 시작하는 반면, 대부분의 최고 NFL 쿼터백들은 고등학교에서 여러 스포츠를 했다.

마이클 펄프스는 처음에 청소년 축구를 하고 싶어했지만, 어머니가 수영 전문화를 고려해 보라고 격려했고, 그는 역대 가장 많은 메달을 딴 올림픽 선수가 되었다. 패트릭 마홈스는 대학에서 잠깐 야구팀에서 뛰었지만, 30세 이전에 MVP와 슈퍼볼 3회 우승 쿼터백이 되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아이들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할 때, 자얀티는 다른 것도 믿는다: 스키가 아마도 시너를 더 나은 테니스 선수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하지만 부모들이 고려해야 할 것은 훨씬 더 많다.

"12살 아이를 프로 야구선수로 키울 것인가, 아니면 훌륭한 사람으로 키울 것인가?"

자얀티는 우연히 스포츠 전문화 문제를 발견했다.

정형외과 의사로 훈련받은 그는 2000년대 중반 청소년 테니스 선수들의 부상을 조사하다가 동료들과 함께 흥미로운 연관성을 발견했다. 12세에서 18세 사이의 엘리트 테니스 선수 53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약 70%가 10세 즈음에 테니스를 전문화했다. 이 그룹은 전문화하지 않은 선수들보다 부상을 당할 확률이 1.5배 높았다.



04

자얀티는 데이터에 대해 과도하게 확신하지는 않았지만, 2009년에 발표된 이 논문은 스포츠 전문화와 부상 위험을 연관시킨 첫 번째 연구였다. 또한 청소년 테니스의 압박을 자세히 다룬 안드레 애거시의 회고록 '오픈'이 출간된 해이기도 했다.

이 연구는 전문화와 부상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추가 연구를 촉발했다. 또한 모든 청소년 스포츠에서 증가하는 전문화에 대한 반발로 이어졌고, 이러한 추세에 맞서는 사례들에 주목하게 했다. 다양한 어린 시절 스포츠에서 크게 도움을 받은 선수들의 사례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뉴욕 양키스의 스타 애런 저지가 여러 번의 MVP를 수상하기 전,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3개 종목 선수였으며 고등학교 내내 농구와 축구를 계속했다. 마홈스의 어린 시절 대부분 동안 축구는 그가 세 번째로 좋아하는 스포츠였다. MLB 투수 팻 마홈스의 아들인 패트릭은 야구에서 뛰어났고 친구들과 농구 코트에서 즐거움을 찾았다. 그는 고등학교 3학년 중반까지 주전 쿼터백이 되지 않았다.

축구에 빠져들었을 때, 그의 샘플링 경험이 플레이에 영향을 미쳤다. 농구 덕분에 그는 완벽한 공간 인식 능력을 갖췄다. 야구 덕분에 어색한 자세와 비관습적인 팔 각도에서 던지는 기술을 터득했다.

"그게 유격수 플레이죠"라고 마홈스는 말한 적이 있다.

연구자들에게 마홈스의 이야기는 그들이 '적응성'이라고 부르는 것, 크로스 트레이닝 개념의 변형을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다.

"기술 전이가 있습니다"라고 자얀티는 말했다. "매번 같은 신체 부위에 과부하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미, 문제 해결, 다양성의 요소도 있습니다."

과학은 다른 장점들도 밝혀낸다. 에모리 스포츠 성과 및 연구 센터의 디렉터인 그레고리 마이어는 신경근 훈련과 생체역학을 연구해왔다. 젊은 선수가 어린 나이에 여러 스포츠를 샘플링할 때, 이는 단순히 다양한 근육을 활용하고 기르는 것이 아니다. 인지적 이점도 있다.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은, 마이어에 따르면, 신체의 적응성과 그가 '신경 효율성'이라고 하는 뇌의 능력을 만든다고 한다. 한 가지 결과: 에모리에서 실시한 가상현실 연구에 따르면, 다종목 선수들이 더 나은 운동 제어력과 착지 기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선수가 어린 시절 좋은 스포츠 샘플링을 받기 전에 전문화한다면, 다양한 필수 운동 기술을 개발하지 못합니다"라고 마이어는 말했다.

그런데 최초 연구 발표 이후 15년 동안 흥미로운 발전이 있었다. 부상 위험과의 연관성과 스포츠계의 주목받는 사례들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수치는 변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여전히 같은 비율로 스포츠를 전문화하고 있다.

신중한 전문화의 길

자얀티와 마이어는 스포츠 전문화를 정의하는 간단한 틀을 사용하며,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

선수가 연간 8개월 이상 한 스포츠를 위해 훈련하는가?

선수가 하나의 '주요 스포츠'를 선택하는가?

선수가 한 스포츠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모든 스포츠를 그만뒀는가?

세 가지 모두에 '예'라고 답하는 선수들은 '높은' 전문화로, 두 가지에 해당하는 선수들은 '보통'으로 간주된다. 나머지는 '낮은' 전문화로 여겨진다. 연구자들은 각 그룹이 대략 미국 젊은 선수 인구의 3분의 1씩을 차지한다고 추정하는데, 이는 자얀티가 연구를 시작했을 때와 같은 비율이다.

수치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면, 마이어에게는 다른 아이디어가 있었다: 아마도 신중하게 전문화할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할 수 없다' 또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교조적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마이어는 말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문화할 아이들이 있다면, 어떻게 그들을 도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초기 연구 이후 몇 년 동안, 연구자들은 코치와 부모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 젊은 선수들이 단일 스포츠를 자신의 나이보다 더 많은 시간(주당)으로 훈련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 팀 스포츠의 경우, 자얀티는 소녀들이 최소 11세에서 13세까지, 소년들은 최소 13세에서 15세까지 전문화를 기다려야 한다고 조언하며, 이는 신체가 골격적으로 성숙하도록 허용하기 위함이다.

스포츠에 따라서도 다르다. 축구나 농구 같은 순수한 힘과 속도를 바탕으로 하는 활동의 경우, 16세에서 18세 즈음에 전문화해도 해당 스포츠의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 테니스, 골프, 야구처럼 더 많은 기술적 숙련을 요구하는 스포츠에서는 청소년 중기에 전문화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예외도 있다: 체조를 보자. 선수들이 완전히 성숙하기 전에 경쟁하는 기술적 스포츠다. 조기 전문화의 경우, 마이어는 다른 스포츠와 동작 패턴을 모방하는 훈련 방법을 채택해 부상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연구 과정의 한 시점에서 자얀티는 청소년 스포츠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하기 시작했다. 재미있게 지내고 인생 교훈을 배우기 위한 것인가? 공중 보건의 문제인가? 그리고 프로나 심지어 대학 스포츠를 할 현실적인 기회가 없지만 팀에 들어가는 것에 내재된 자신감 향상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은 어떤가? 그것을 하기 위해 전문화된 훈련이 필요하다면?

"목표가 동네에서 최고의 12살이 되는 것이라면"이라고 자얀티는 말했다. "6살 때 시작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최고의 12살로 만들어라. 그러면 실제로 합리적인 기회를 갖게 된다."

자얀티는 이것을 '단기 선수 육성'이라고 부른다. 장기적으로 선수가 최대 잠재력에 도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고, 고유한 부상 위험이 따른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자얀티는 말했다. "안타깝게도."

다양성이 주는 정신적 강인함

시너가 스키가 자신의 테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되돌아볼 때, 그는 균형감을 언급했는데, 이는 코트에서의 감각적인 신체 제어와 움직임으로 나타난다. 키가 6피트 3인치의 근육질 체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투어에서 최고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선수 중 하나다.

하지만 그는 진짜 이점은 실패에 대처하는 법을 배운 것이라고 믿는다. 스키에서 한 번 실수 하면 경기에서 이길 수 없었다. 테니스에서는 수많은 실수를 하고도 계속 반격할 수 있다.

"스키를 통해 완전히 다른 정신력을 갖게 됩니다"라고 시너는 말했다.

세계 7위 여자 테니스 선수인 제시카 페굴라는 다양한 스포츠를 하며 자랐다. 팀 소프트볼을 해보고, 축구를 했으며, 7세에서 10세 사이에 골프 레슨을 받았다. 11세에 테니스에만 집중하기 시작했다.

페굴라는 초기 샘플링이 자신의 눈과 손의 협응력의 토대를 마련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자신의 늦은 개화 경력을 생각해보면 - 25세에 첫 WTA 타이틀, 30세에 첫 그랜드 슬램 결승 - 아마 전문화를 더 늦춰도 됐을 것이다. 그래도 주니어에서 뛰어나야 한다는 압박은 분명했다.

"아마 몇 년 더 했어도 큰 영향은 없었을 것 같아요"라고 페굴라는 말했다. "제 경력을 보면, 나중이야 정말 잘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12, 13살쯤 되면 토너먼트에 참가하고 랭킹을 쌓는 데 어느 정도 전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페굴라의 길은 전문화 질문의 간과된 측면을 보여준다. 단지 어린 아이들이 더 일찍 전문화하는 것만이 아니다. 어린 나이부터 그들의 거의 모든 스포츠 경험이 조직화된 환경에서 이뤄진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문화가 사라져버렸습니다"라고 자얀티는 말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주로 자유롭게, 어른들의 간섭 없이 스포츠를 즐겼다. 지금은 정반대다. 미국 아이들은 그냥 놀이로 하는 스포츠보다 체계적으로 짜인 스포츠 활동에 두 배나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 연구 결과 자유롭게 뛰어노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부상 위험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더 나은 운동 기술과 증가된 창의성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많은 부모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아이들이 뒤처질 것이라는 지속적인 두려움이 남아있다.

전 NFL 타이트엔드인 그렉 올슨이 2021년 은퇴했을 때, 그는 젊은 선수들과 그들의 부모에 초점을 맞춘 플랫폼인 'Youth Inc.'를 시작했다. 그의 경험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 그는 사회적 압박과 기업화된 문화로 둘러싸인, 완전히 다른 스포츠 환경에 들어서고 있는 세 명의 십대 초반 자녀를 두고 있다.

"아이들이 느끼는 것은"이라고 올슨이 최근 디 애슬레틱의 엘리스 데블린에게 말했다. "지난 12개월간 그 스포츠만 해온 아이들과 경쟁하기 위해 매 시즌 새로운 스포츠에 뛰어드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올슨은 이런 사고방식이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다고 믿는다: 재능 있는 선수가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는 어떤 것을 잘하지 못하는 것이다. 모든 스포츠는 뚜렷한 문화, 기술, 새로운 정신적 도전을 제공한다.

스타 축구 선수가 거울에 농구팀에서 보조 플레이어로 보낼 때, 그는 신체적으로 도전받는 동시에 팀워크에 대한 필수적인 관점을 얻을 수 있다. 단순히 역경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기회다.



04

"각각의 독특한 스포츠는 그들이 배우고, 실패하고, 성공할 수 있는 매우 다른 환경을 제공합니다"라고 올슨은 말했다.

많은 연구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여러 스포츠를 경험해보지 못한 아이들이 정작 자신에게 가장 맞는 종목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이다. 진짜 뛰어난 선수들은 대부분 사춘기가 지나서야 두각을 나타낸다. 너무 일찍 한 종목에만 매달리고 자유롭게 뛰어노는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마이어가 더욱 우려하는 문제가 생겼다. 바로 스포츠를 아예 그만두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저에게 일찍 스포츠를 그만두는 것이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평생에 걸쳐 건강한 운동과 스포츠를 즐길 기회를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마이어는 말했다.

WTA를 자문하고 에모리의 테니스 의학 프로그램을 이끄는 자얀티에게, 시너와 다른 선수들의 이야기는 운동 발달에 대한 그의 관점을 형성했다. 테니스 같은 스포츠에서는 극도의 연습량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이는 더 이른 전문화로 이어진다. 하지만 어린 시절 다양한 기술을 익힌 선수들이 그런 부담을 감당하는 데 가장 잘 준비되어 있을 수 있다.

"더 좋은 방법은 먼저 운동선수로서의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는 것 같습니다"라고 자얀티는 말했다. "나이가 좀 더 들고 뼈와 근육이 충분히 자란 다음에야 고강도 훈련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때 본격적으로 강도를 올리면 됩니다."

자얀티에 따르면, 언제나 남들과 다른 길을 걷는 선수들이 있기 마련이다. 만약 그가 미국 전체 아이들에게 조언한다면, 서두르지 말고 여러 스포츠를 경험해보며 다양한 기술을 익히고, 무엇보다 재미있게 즐기는 데 집중하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일찍 전문화하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라고 자얀티는 말했다. "그중 일부는 정말 크게 성공할 거예요. 그들은 예외적인 경우니까요."



05

'운동하는 모든 학생, 자기주도적 미래형 체육 인재 육성' 축제 한마당

경남일보

2025.09.12 15:07

사진=(경남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운동하는 모든 학생, 자기주도적 미래형 체육 인재 육성’을 목표로 제19회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를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는 1학기 교육지원청 단위 리그를 통해 선발된 초등학교 185개교 3,470명, 중학교 158개교 3,478명, 고등학교 107개교 2,241명 등 총 789개 팀, 9,189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경기는 도내 각 지역에서 26개 종목으로 분산 개최되어 학생들이 다양한 무대에서 기량을 뽐낼 예정이다.

행사는 단순한 승부의 자리를 넘어,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공정·협동·도전의 스포츠 가치를 체험하는 축제의 장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우승한 클럽은 오는 10월~11월 열리는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에 경남 대표로 출전해 기량을 펼치게 된다.

박종훈 교육감은 “운동하는 학생이 행복하다는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대회 참가를 위해 헌신한 학교 관계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경상남도체육회에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상대를 배려하고 손을 내미는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보여준 학생들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



체육 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여러분의 후원이 건강한 스포츠 사회를 만듭니다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인권과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문화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후원: 국민은행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연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sportscm.org/%ED%9B%84%EC%9B%90%ED%95%98%EA%B8%B0>